



바른두레생협

서포터즈 1기 2조



기후위기와 생활재 | 이산화탄소와 로컬푸드

100년 내에 사라질 수도 ...



▲ 출처 | 나우뉴스



전 세계의 열대우림이 삼림 벌채로 인하여 전례 없는 규모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대로면 100년 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함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



▲ 출처 | 중앙일보



호주 산불과 사하라사막에 내린 눈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되면서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나무와 숲이 계속해서 없어진다면
기후위기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될 것



우리는 나무 자원을 더 심고, 아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

바른두레생활협mall

바른두레생활협 연합몰에서
나무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생활재를 찾기로 함

코주부 12분의 1그루 두루마리 휴지는요!

나무 대신 우유갑.

자연을 위한 우유갑 되살림 휴지로 좀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자연은 덜 힘들게



나무 대신 **우유갑을 재사용**해서 만드는 휴지로,
12팩을 사용하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리는 셈

4無첨가! 키친타올처럼 간편한 유해성분 검사완료

시험성적서

시험항목	단위	시험 방법	시험결과	비 고	시험 장소
잔류 PCBs	mg/kg	(1)	불검출		A
잔류 납(Pb)	mg/L	(1)	불검출		
잔류 카드뮴(Cd)	mg/L	(1)	불검출		
잔류 염산용액	---	(1)	불검출		
잔류 인산용액	mg/L	(2)	불검출		
잔류 염산용액	mg/L	(3)	39.560	중도 02.6 ± 1.0 %, 하도 1.0 ± 0.2 % A.K.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먼지 날림이 적음
심지어 다른 제품보다 더 길어 오래오래 사용 가능

아크릴 수세미로 인한 환경오염

↳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합성 섬유



아크릴 수세미로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마다
조금씩 마모되어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를 떨어뜨림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감
하천으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이 먹게 됨
플랑크톤은 물고기에게 잡아 먹힘
결국 먹이 사슬 끝에 있는 우리가 먹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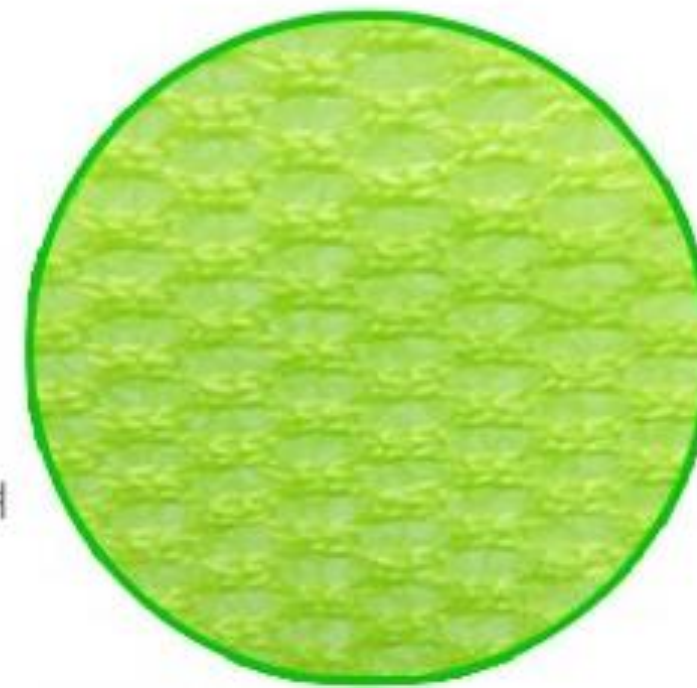
바른두레생협에서는 ? 친환경 원료로 만든 수세미를 판매중 !



- 품 명 : 자연으로 친환경 수세미
- 재 질 : 식물원료 PLA
- 규 격 : 수세미 250mm X 180mm
- 제조국 : 대한민국

수세미 확대이미지

고리형 그물망으로 되어있어,
식기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세척해 주며, 물빠짐이 우수하여
위생적입니다.



▲ 친환경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씨에이치하모니와 인연을 맺어
판매중인 식물성 생분해 수지로 만든 친환경 수세미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각 과정에서도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땅에 묻으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됨

이산화탄소 절감의 필요성



▲ 마다가스카르에만 살고 있는 얼룩 여우 원숭이
2070년 여우 원숭이 서식지 최대 93% 파괴 예상

19세기 산업화를 거치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 기체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구 표면 온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함

▶ 현재 관찰되는 기후 변화는
과거 지구 온도 상승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생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특정 생물 종의 생존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감소와 파괴를 가져와 지구 전체 생물 종의 공멸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함

로컬푸드 꾸러미



▲ 지역에서 자란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농산물 꾸러미들

로컬 푸드란 ?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
>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로컬푸드의 장점!

1. 신선한 먹거리
2. 온실가스 배출 절감
3. 지역경제 활성화



감사합니다

바른두레생협 서포터즈 1기 2조